



희비 잇갈린 윤석민 볼티모어行

윤석민의 빅리그 진출에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국가대표 우완 윤석민(전 KIA)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 윤석민이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을 하면서 빅리그의 꿈을 이뤘다.
볼티모어와 줄다리기를 해왔던 윤석민과 전 소속팀 KIA가 마침내 웃었지만 그의 영입을 준비했던 국내 팀들은 땅을 쳤다.
윤석민은 메이저리그 팀들 뿐만 아니라 국내 팀들에게도 이번 스토브리그의 관심사였다. 최근 2년 동안의 아쉬웠던 성적, 다나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윤석민의 계약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국내 유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민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국내 팀은 세 팀 정도다.
윤석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 100억을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한 팀이 있었고, 역시 이에 맞먹는 금액과 함께 내년 시즌이라도 당장 빅리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세운 팀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KIA 역시 에이스의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당한 금액을 배정했다.
내심 국내 유턴을 기대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던 팀들에게 윤석민의 희소식은 슬픈 소식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던 계약이었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윤석민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날짜로 12일

3년 59억원에 빅리그 진출

유턴 기대 국내팀들 허탈

KIA는 안도의 한숨

이었다. 트위터에 올린 볼티모어 모자를 쓴 사진은 계약 안료를 알리는 힌트였다.
하지만 최종 사인을 하기 전까지 상황은 급박했다. 양측은 오랜 시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없이 입장차만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계약이 늦어질 경우 시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과 그 결과에 대한 고민으로 윤석민도 국내 복귀까지 염두에 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었다. 다행히 윤석민측이 설정해뒀던 막바지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면서 마침내 양 측이 손을 잡았고, 국내유턴도 없던 일이 됐다.
단순한 손익 계산으로 따지면 국내 복귀가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윤석민은 자신의 꿈을 선택하며 활짝 웃었다. 마음을 즐기고 있던 KIA도 웃었다. 윤석민과의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기는 했다.
윤석민이 국내 유턴시 KIA가 아닌 다른 팀으로 선택할 경우 미칠 파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쟁팀들의 빠르고 적극적인

공세에 KIA는 이번 영입전에서 가장 뒷전으로 밀려있던 팀이다. 팀내 입지와 달리 윤석민은 특별한 마찰없이 속전속결로 연봉협상 도장을 찍곤 했다. 자해소동이 벌어졌던 2010년에는 상당한 벌금과 함께 연봉을 백지위임했고, 절치부심 4관왕에 올랐던 2011년에도 빅리그 진출을 연기하고도 만족스런 연봉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소동은 없었다.
FA를 앞두고 있던 지난 시즌에도 자신이 제시했던 4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3억8000에 연봉 계약을 끝냈다. 모처럼 "KIA와 마지막 계약이 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처음 제시받은 금액에 변화가 없자 추가 협상 없이 바로 도장을 찍었다. 그동안 큰 마찰은 없었지만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만큼 연봉협상을 놓고 내심 구단에 섭섭한 감정은 남아있다.
무엇보다 윤석민 최종 목적지는 메이저리그였다. 재도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선발 역할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어찌 됐든 속을 끓여오던 계약이 끝나면서 많은 이들이 웃었다. 윤석민의 간절했던 도전도 드디어 시작됐다.
한편 윤석민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3년 557만5000달러(약 59억2500만원)~575만 달러(약 61억2000만원)의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 금액을 감수하며 등판 횟수와 이닝 소화에 따른 최대 700만 달러 수준의 인센티브를 약속 받고 마이네리그 강등 거부권도 얻어내며 계약을 맺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전훈지 日 시즈오카를 가다



훈련 미루고 제철작업에 한창인 선수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0년만의 폭설 맞은 캠프 삼 들고 눈 속 '이색 훈련'

시즈오카=김여울기자 wool@

기록적인 폭설을 만난 광주 FC의 캠프에 눈치우기 대소동이 벌어졌다. 폭설로 몸살을 앓던 일본 수도권에 지난 15일 다시 눈폭탄이 떨어졌다. 50년 만의 폭설에 교통 대란이 벌어졌고 시즈오카로 전지훈련을 온 광주 FC 선수들도 눈에 발이 묶였다.
광주의 캠프는 한적한 시즈오카 고텐바 도키노스미카 스포츠 센터에 위치해 있다. 비교적 따뜻한 기후에 숙소에 온천이 있고 연습구장과 웨이트장이 갖추어져 있는 등 운동하기에 좋은 조건이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눈은 만났다.
14일 원정 연습경기에서는 강한 비바람에 예정됐던 두 경기를 다 치르지 못하는 등 약천후에 훈련에 차질이 계속됐던 터라 광주 코칭스태프가 결국 삼을 집어들었다.
스포츠센터 인조잔디 구장이 그들의 목표지점이었다. 김영철 수석코치를 필두로 주무·트레이너·분석관 등 프런트 직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남기일 감독대행도 삼을 집어들면서 눈 치우기 대작전이 전개됐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수들까지 눈발에 뛰어들면서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들어가서 쉬라"는 남 감독대행의 외침에도 고함 최성환을 중심으로 김민수·여름·전준형 등이 "같이 해야 한다"며 삼을 들고고 주장 이만도 빠질 수 없었다.
습설(濕雪)이라 만만치 않은 무게였지만 "이것도 운동이다"며 선수들은 눈과의 싸움을 하면서 맘을 즐겼다. 같은 곳에 캠프를 꾸린 일본 대학팀 선수들이 신기한 눈으로 지켜볼 정도로 무모하게 보였던 작업.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합치면서 불가능은 가능이 됐다.
2시간 가량의 작업 끝에 선수단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잠시 눈싸움을 하면서 동심의 세계에 빠지기도 했다. 뜻깊게 마련한 공간에서 선수들은 체력훈련과 패시 게임 등을 하면서 이색적인 눈 속에서의 훈련을 진행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 50년 만의 폭설도 막지 못한 이들의 열정과 동료애가 광주 캠프를 움직이고 있다.



평창까지 점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스키 점프 대표팀 강철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소치 산악 클러스터 루스키 고르키 점핑 센터에서 남자 스키점프 라지 힐 예선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은 최흥철의 점프 장면을 다중촬영한 모습. /연남뉴스

위기의 '한국 쇼트트랙' 金 기대주 심석희 女 1500m 은...男, 1000m·1500m·계주 노메달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주력 종목인 1,000m에서도 메달을 따는 데 실패해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이후 12년 만에 '노메달' 위기에 처했다. 이종목 금메달은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29·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차지했다. 심석희는 15일

(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키에팅 팰리스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9초239로 저우양(중국·2분19초140)에 이어 2위로 레이스를 마쳐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로써 심석희는 여자 500m 동메달리스트 박승희(화성시청)에 이어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한국에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 여자 1,500m에서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딴 한국 쇼트트랙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저우양에게 우승을 빼앗겼다가 이번에 올 시즌 세계랭킹 1위 심석희를 앞세워 정상을 되찾으려 했지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어 열린 남자 1,000m에서 한국은 메달 획득에 또 실패했다.

신다운(21·서울시청)이 결승까지 올랐지만 반칙 판정을 받고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심관진은 신다운이 레이스 중 경쟁 선수의 레이스를 방해했다고 판정했다.
지난 10일 1,500m 준결승에서 넘어지면서 탈락한 신다운은 1,000m에서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결승에 진출해 명예회복을 노렸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연남뉴스

광주 FC, 혜택 추가 '시즌권' 판매

프로축구 광주 FC가 시즌권 판매에 들어갔다. 시즌권 가격은 성인 4만원, 어린이 2만원으로 2014시즌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홈경기(정규리그·FA컵) 관람이 가능하다.
다양한 혜택도 더해졌다. 시즌권 구입고객에게 광주패밀리랜드(놀이공원) 자유이용권과 청연의료재단 성장 검진권이 각각 1매씩 무료로 제공된다. 또 전용좌석(200석)을 별도로 설치해 차·다과 등을 제공하고 K리그 챌린지 우승시 각종 기념품도 선물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권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로형 대신 세로형 목걸이 형태로 제작했다. 이용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시즌권 구매자 1인에 한해 홈경기 관람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차감방식(20회 관람)으로 전환해 친구, 가족 등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입은 광주 FC 사무국(062-373-7733)과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 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광주 중심의 온천이 있나요?
부담없는 호텔 VIP회원권이 있나요?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매년7회갱신]
VIP 연회원권 신설!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패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문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